

KIA 금주의 프로야구

▲15~17일 : LG전·잠실
▲18~20일 : 한화전·광주

“리마, 연패 사슬 끊어라”

지난주 롯데 자이언츠와의 원정 3연전에서 완패를 당하며 6연패의 늪에 빠진 KIA 타이거즈가 이번주 리마와 최희섭을 앞세우고 하위탈출을 선언했다. 이번주 KIA는 나란히 6,7,8위의 하위권에서 처진 LG 트윈스와 한화 이글스와의 6연전을 앞두고 있다. 하위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팀들과의 대결이라 이번주 대결에서 패한다면 KIA로서는 만회하기가 힘들다.

최희섭은 개막 3연패의 위기 때 팀을 구했다. 지난 2일 두산과의 2차전에서 최희섭은 1회 2사 1,2루서 결승안타를 때리며 팀의 첫 승을 이끌었고, 첫 홈런과 3루타를 날린 3일, 5일의 경기 결과도 승리였다. KIA가 지금까지 거둔 3승에는 최희섭이 있었다. 지난 13일 경기에 대타로 나오며 자존심을 구졌던 최희섭은 자신보다 팀의 승리가 더 중요하며 이번주 승리를 위한 타격감을 조절하고 있다. 여기에 타격 부진으로 특유의 기동성을 선보이지 못했던 발데스가 3경기 연속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활활 날고 있다.



리마

‘6연패 악몽’ 씻을 팀 활력소 필요

장성호·최희섭 등 거포 부활 시급

오늘 선발 투수 리마 역투도 기대

Table with 6 columns: 순위, 팀, 승, 패, 무, 승률, 게임차, 연속. It lists the performance of various teams in the KBO leag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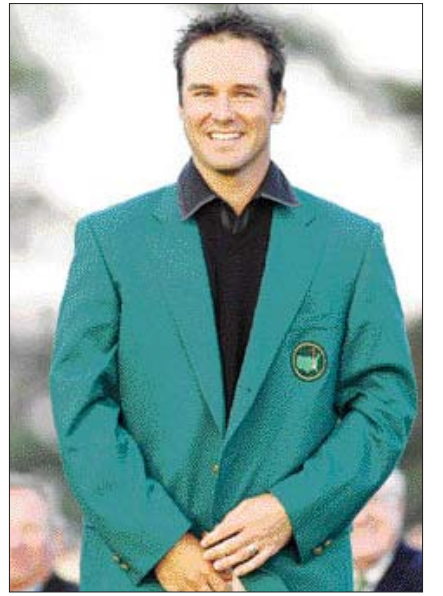
철벽 마운드가 가동되면 타선이 침묵을 지켰고, 모처럼 선취점을 뽑았다 싶으면 든든하던 마운드가 흔들렸다. 이같은 초반 KIA의 부진에 대해 김성한 ESPN해설위원은 “팀 활력을 찾는 게 가장 시급하다며, 선수들 모두 책임감을 갖고 팀 전체를 위해 뛰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수들이 팀 전체보다 최소한의 자기 역할을 하려는 데 급급한 나머지 책임감이 결여된 모습이 눈에 띈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은 “자꾸 패배하다 보면 선수들의 의식 속에 패배주의가 잠재될 수밖에 없다”며 “그 부분을 탈출하려면 새로 팀에 합류한 선수들이 활력을 불어넣고 분위기를 띄워야 하는 데 아직 팀에 대한 적응과 역할이 완전히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현재의 연패를 일시적인 슬럼프로 진단하면서, 선수단의 분위기가 살아나면 KIA의 전망은 매우 밝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도 시즌을 앞두고 KIA를 4강팀으로 꼽았다. 또한 최희섭이 KIA의 운명을 쥐고 있는 선수라는 평가를 내렸다. 따라서 최희섭의 부활이 곧 KIA의 부활이라고 할 수 있다.

3경기 동안 13타수 8안타로 6할대를 상회하는 폭발적 타격을 보이고 있다. 2루타도 4개로 타격감을 완전히 찾은 모습이다. KIA로서는 불박이 2번타자를 찾은 셈이다. 1번 이용규에 이어 발데스가 살아난다면 ‘테이블 세터’로서 제 몫을 다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운드에서는 노련한 리마가 대기하고 있다. 15일 LG빙중근과 대결서 6연패의 사슬을 끊을 돌격대상 리마는 방어를 3.50으로 팀 타선만 터진다면 제 몫은 충분히 해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리마가 LG를 잡고 첫 승을 거둔다면 그동안 침체했던 KIA 덕아웃 분위기가 살아나는 시너지 효과까지 기대된다. 최하위로 떨어진 KIA 선수들이 특유의 끈기와 투혼을 발휘하며 도약하는 한 주가 될지 팬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세계 29위 신예 이멜만 우즈 제치고 ‘그린재킷’

우즈 “그랜드슬램 내년으로”

팬들에게 이렇듯 낮은 세계랭킹 29위 트레버 이멜만이 ‘남아공·사진’이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를 제치고 신(神)이 잡지한다는 그린재킷을 입는 주인공이 됐다. 이멜만은 14일(한국시간)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 오거스타내셔널골프장(파 72·7천445야드)에서 열린 최종 라운드에서 3타를 잃었지만 4라운드 합계 8언더파 280타로 우승했다. 우즈는 4라운드를 이븐파 72타로 마쳐 이멜만에 3타 뒤진 5언더파 283타로 준우승해 연간 4개 메이저대회를 모두 석권하는 그랜드슬램의 꿈을 내년으로 미뤘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우승은 2006년 웨스턴오픈 한 번 뿐이던 이멜만은 투어 두번째 우승을 메이저대회에서 이뤄내는 파란을 연출하며 깜짝 스타로 등장했다. 특히 이멜만은 이번 대회에서 최다 출장 기록(51회)을 세운 고국 남아공의 대선배 개리 플레이어와 각별한 인연으로 화제가 됐다. 세차례 마스터스 챔피언이었던 72세 플레이어는 이멜만이 미국에 진출하도록 이끈 데 이어 이번 대회 때도 연승 마운드를 함께 하는가 하면 대회 내내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이멜만은 플레이어가 마지막으로 마스터스 정상에 올랐던 1978년 이후 꼭 30년 만에 남아공 골프의 마스터스 제패의 꿈을 다시 이뤄 은혜에 보답했다. 넬던 전 황제막에 종양이 발견돼 수술을 받고 투아에 복귀하느라 이멜만은 올해 8



개 대회에서 네차례나 컷오프되고 한 번도 ‘톱 10’에 들지 못했지만 최고 대회에서 정상에 오르는 극적인 반전을 누렸다. 우즈 상금 135만 달러를 받아 상금랭킹 10위로 뛰어 올랐고 세계랭킹도 10위권으로 수직 상승하게 된 이멜만은 무엇보다 ‘메이저대회 챔피언’의 영예가 평생 동안 따라 붙는다는 것을 감격스러워했다. 우즈와 동반 플레이를 펼치면서 같은 이븐파 72타를 적어낸 스튜어트 싱크(미국)가 5오버파 77타를 친 스니데커와 함께 공동 3위(4언더파 284타)에 올랐다. 역시 이븐파 72타를 친 필 미켈슨(미국)과 파드리크 헤링턴(아일랜드)은 6오버파 78타로 망가진 플레이와 함께 공동 5위(2언더파 286타)가 됐고 7타를 잃어버린 케이시는 공동 11위(이븐파 288타)로 밀려났다. ‘탱크’ 최경주(38·나이키골프)는 1오버파 73타를 쳐 최종 합계 10오버파 298타로 41위에 그쳤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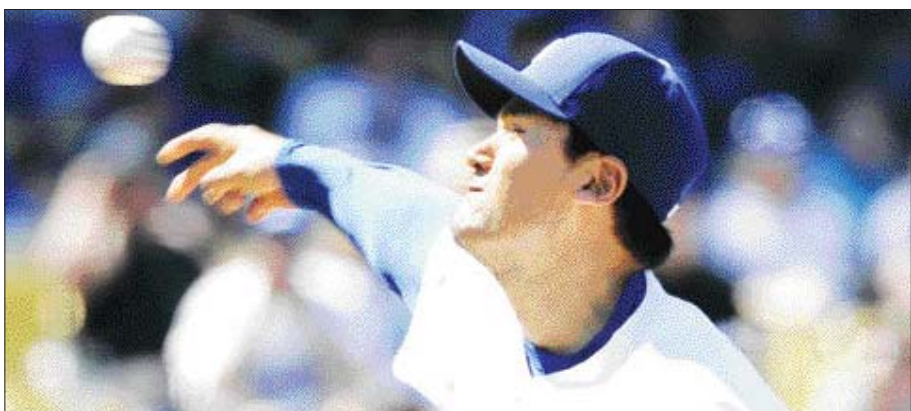
오초아 시즌 4번째 우승 ‘명예의 전당’ 자격 획득

LPGA 코로나 챔피언십 김승희 2위·박인비 3위

여제 로레나 오초아(멕시코·사진)가 미국 땅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코로나 챔피언십에서 시즌 네번째 우승을 차지하며 명예의 전당 입회 자격을 모두 갖췄다. 오초아는 14일(한국시간) 멕시코 모델리아 트레스 마리아스 레시덴셜 골프장(파73·6천539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라운드에서 4타를 줄이며 25언더파 267타로 우승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14언더파 278타를 친 2위 김승희(20·힐라코리아)를 무려 11타차로 따돌린 완승이었다. 올 시즌 다섯 차례 출전한 대회에서 4개의 우승 트로피를 수집한 오초아는 통산 21승을 올리며 ‘천하무적’임을 입증했고 26세 4개월 29일만에 명예의 전당 입회에 필요한 27포인트를 충족시켰다. 2003년 LPGA 투어에 뛰어든 오초아는 LPGA 투어에서 10년 이상을 활동해야 한다는 명예의 전당 입회 규정에 따라 2012년에 정식 회원이 된다. LPGA 투어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명예의 전당 입회 자격을 획득한 선수는 25세 7개월 2일에 자격을 갖춘 카리 웹(호주)이다. 오초아는 또 상금 19만5천달러를 보태 LPGA 투어 사상 5개 대회만에 시즌 상금



100만달러를 돌파한 최초의 선수라는 기록까지 세웠다. 전반에 1타를 줄이며 힘겨운 추격전을 펼치던 박인비는 10번홀(파5)과 11번홀에서 연속 버디를 잡아 오초아와 격차를 4타로 좁혔다. 하지만 오초아는 흔들리지 않고 남은 홀에서 버디 3개를 추가했고 박인비는 보기 2개에다 더블보기 1개를 보태는 바람에 공동 3위로 밀려났다. 2007년 LPGA 투어에 출전한 김승희는 데뷔 이후 가장 좋은 성적을 냈다. 최나연(21·SK텔레콤)도 12언더파 280타를 쳐 공동 5위에 오르며 내년 LPGA 투어 풀시드를 사실상 확정했고 올 시즌 신인왕 포인트에서 1위를 달렸다.



박찬호 3경기 연속 무실점 패투

샌디에이고전 최고 구속 151km

볼펜 투수로 보직을 바꾼 박찬호(LA다저스·사진)가 세 경기 연속 호투를 펼쳤다. 박찬호는 14일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스타디움에서 벌어진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홈경기에서 0-1로 뒤진 6회부터 채드 빌링슬리에 이어 두 번째 투수로 마운드에 올라 2이닝 동안 안타 2개를 맞았으나 점수는 내지주 않았다. 박찬호는 첫 타자 케빈 구즈마노프에게 중전 안타, 짐 에드먼즈에게 우전 안타를 내줬고 에드먼즈가 2루까지 뛰다 희생했지만 1사 3루 실점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칼리어 그린을 7구째 슬라이더로 헛스윙 삼진 처리하며 관록을 발휘했고 조

시 바드를 유격수 뜬공으로 잡아내고 급한 불을 껐다. 안정을 찾은 7회에는 풀 매커넬리, 대타 토니 클락, 스티브 헤이스턴을 각각 뜬공 두 개와 삼진으로 처리하고 임무를 완수했다. 박찬호는 이날도 최고 시속 151km를 찍는 등 패투의 컨디션을 유지했다. 공 27개를 던져 20개를 스트라이크로 꽂아넣는 공격적인 투구로 타자를 압도했다. 10일 애리조나전(1¼이닝), 11일 샌디에이고전(1이닝)에 이어 세 경기 연속 무실점 행진으로 평균자책점을 2.25에서 1.50으로 떨어뜨렸다. 박찬호는 특히 두 경기 연속 볼넷을 내주지 않아 중간 계투로서 신뢰를 벤치에 심어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다저스는 5안타 안타 속에 샌디에이고에 0-1로 패했다.

올림픽 男배구팀 확정

2008 베이징올림픽 출전권을 확보하기 위해 나설 남자배구 대표팀이 확정됐다. 14일 대한배구협회는 5월31일 일본 도쿄에서 개막될 올림픽 지역예선 남자대표팀 최종 엔트리 12명을 발표했다. 레프트에는 2007-2008 시즌 허리부상으로 부진했던 이경수(LIG손해보험)와 오픈 공격이 장점인 신영수(대한항공), 수비가 일품인 석진욱(대한항공)과 장광권(대한항공) 등 4명이 나선다. 라이트에는 유일한 대학생 문성민(경기대)과 백전노장 후인정(현대캐피탈)이 출격하고 센터에는 이선규, 하경민(이상 현대캐피탈), 신선호(삼성화재)가 포함됐다. 또 세터 최태웅(삼성화재)과 권영민(현대캐피탈)은 볼배급을 책임지게 되며, 리베로 여오현(삼성화재)은 그물망 수비를 펼친다. 지난 해 기흥수술을 받은 라이트 박철우(현대캐피탈)는 구단과 상의해 최종 엔트리에서 빠졌다. ◇남자 대표팀 최종 명단 ◇감독 = 류종탁 ◇선수 ▲레프트=이경수(LIG손해보험) 신영수 장광권(이상 대한항공) 석진욱(삼성화재) ▲라이트=후인정(현대캐피탈) 문성민(경기대) ▲세터=최태웅(삼성화재) 권영민(현대캐피탈) ▲센터=이선규 하경민(이상 현대캐피탈) 신선호(삼성화재) ▲리베로=여오현(삼성화재)

최경주 오늘 귀국

시즌 첫 메이저대회인 마스터스골프대회를 마친 세계랭킹 6위 최경주(38·나이키골프)가 15일 귀국한다. 17일부터 인천 스카이72골프장에서 열리는 SK텔레콤에 출전하는 최경주는 14일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내셔널골프장에서 마스터스 4라운드를 마치고 곧바로 뉴욕으로 이동,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 15일 새벽 인천공항에 도착한다. 최경주는 숙소인 인천 하얏트 리젠시호텔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뒤 스카이72골프장에서 최경주 재단이 주최하는 각종 기부금 전달식과 공식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SK텔레콤오픈 공식 협찬사로 최경주를 위해 방 여성계를 갖춘 77평 크기의 프레지덴셜 스위트 룸을 마련했다. 골프·연도 후원권거래 전문기업 록펠러 회원권

Advertisement for Rockwell Membership, featuring contact information and a phone number (062)351-0095.